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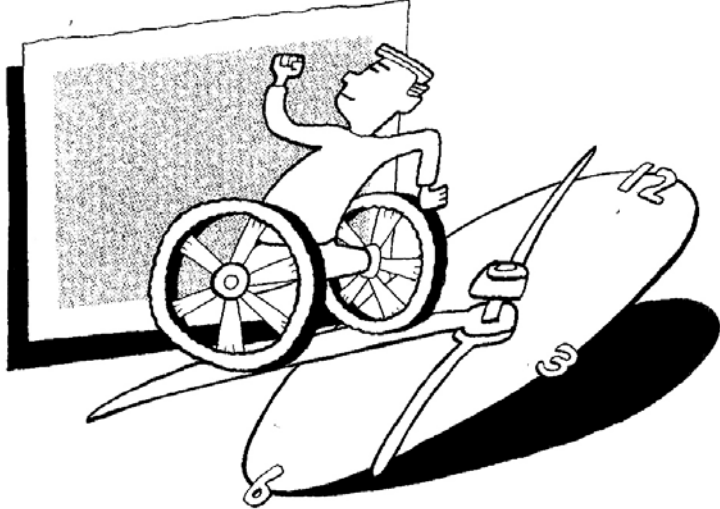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찰나로 돌아가니 쉼 붙을 사이 없어

여러 분과 또 한자리를 하게 됐
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뀝니다.
물론 부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없
이 찰나찰나 나누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세계의 사람이 사는 데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
도 만들어 놓고, 달력도 만들어 놓았습니
다. 살아가시면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개선시키도록 다
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굴왕
신이 내릴 때 집을 지으면 악행이 벌여
지고, 삼재가 든 해는 상당히 조심할 해
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공부
하는 분에게는 일체 모든 것이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까닭에 굴왕신
도 없고 삼재도 없습니다. 악행이라는 말
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
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삼재가
들었던 굴왕신이 내렸든 어떠한 문제가



그림·최주현

**“근본자리에다 말기고 관하면
한마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누구를위해 이름 붙이지 않아도
보살로 화해서 응해 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은 자기 주처에서 하는 것이니 바로
자기 주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처라
는 것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주
인공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겠습니까
마는 굳이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일 중에 모
두가 찰나찰나 나뉘면서 과거로 돌아가
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붙잡을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가 자기의 마음 안에 중심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몸체가 수레라면 정신계의
주장자는 바로 심봉이겠지요. 심봉이 깨
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 심봉이 바퀴를
굴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심봉에서 힘
이 배출되기 때문에 바퀴가 이랄되지 않
고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조 혜능스님도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불성이 있습
니다.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것을
거들 말씀드립니다. 그 주장자를 통해서
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통신이 되고
또 이 세상의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다
가설이 돼 있거든요. 서로의 생명들이 모
습과 말은 통할지라도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어찌 생명과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일어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 통신이 되
면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현상각
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
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굴왕
신도 없고 삼재도 없고, 고도 없다고 하
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
교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를 배종고 타
외에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
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잘되게
해주소서.' 하고 타외에 놓고 빌기만 하
니 그 차원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던가요? 예로부터 4대
성인들과 역대 조사들도 "네 나뉘는 네
뿌리를 믿어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나뉘
는 네 뿌리를 믿어라 공덕이 있느니라. 찰
나찰나 공해서 없어지는 줄 알아야 돌아
니게 여여하게 돌고 날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부가 얼마나 간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어디든 통
신이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보
다도 더 빠르죠.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통신이 되고 꽃들이 말하는 것도 통신이
되고 하더못해 길을 걸다가 나무 한 그
루 돌맹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
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무렇
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답시고 바깥으로 하니까 통신

**“마음공부하는 사람에겐 삼재 고액 없어요”
“마음 주장자 흔들리지 않으면 참선입니다”**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자리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관한다면 저절로 통해서 일체
한마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내 안에다 말
긴다면 누구를 위해서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저절로 통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공덕이며 공심입니다.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주처에다가, 당신
주인공의 주장자에다 일임해서 굴리라고
말입니다. 오는 것을 대처해 막아나가는
것을 '굴린다'고 하며 오로지 들고나가는
것 '털구멍' 한군데서만이 큰 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견해가 이렇
수도 있고 저렇 수도 있지만 결국엔 무
학도에 도달해야만 열반계가 됩니다. 그

것도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름을 따라서
안애다 모든 걸 계산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몸이 이 육신을 움직
거리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만드니까 그 몸이 바로 자기 주장
자임이 분명하죠.
니가 자기 주장자는 바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선장입
니다. 왜냐하면 움직거리지
않는 심봉이 그 힘을 배출해주기 때문
에 수레바퀴가 돌아가거든요. 자기 몸이 수
레바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죽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
가듯 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 먼지가
앞을 사이가 어딴으며, 번개가 불을 사이
가 어딴으며, 삼재가 불을 사이가 어딴

며, 굴왕신이 불을 사이가 어딴으며, 고
(苦)가 불을 사이가 어딴 있습니까? 발
자취를 때놓을 때 때놓으면 한발 없애고
고 때놓으면 한발 없애고 하는 이치와
같은데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연방 과거로 돌아가
는데 팔자운명이 어디 있으며, 삼재액난
이 어디 붙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에 의해서 붙어지는 거지 실지로는 붙어
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몸도 소중한다는 뜻은 그 생명들의
의식들이 내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
로서 움직거리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
에 이 몸이 움직거리고 공부 못하거든요. 내가
있어야 상대도 있고 세상도 알고 또 부
딴함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하지만 보다

라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
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반드시 내리게
되죠. 사람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 만나
죠. 이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것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은 불교
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불교 가 정말 어렵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
인 걸요. 그리고 우리가 살
아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연구하고
해가 넓어지고 창조를 해나가는 것이
(教)이구요. 그러기에 불교라는 것은
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언어가 아니란 겁니다. 주
를 찾는 주인공을 찾는 각자 자기 마음
속에 중심이 있고 자기로 인해 세상이
벌어진 걸 안다면 모두가 하나로 들어
가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각자' 소리를 배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 진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
기 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 형상을 믿
게 된 것 아닙니까? 잘 새겨들으셔야 합
니다. 이름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에는 사성제도 무
시하고 들어갑니다. 왜냐? '고집멸도(苦
集滅道)' 하지만 고가 붙을 자리가 없
고 생각하면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간편한 걸 여러분이 기복
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까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닥치는
대로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
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자기 자신을
배종고, 즉 자기 뿌리와 싹을 다 배종고
타외의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자기까
지도 자기의 고집덩어리를 믿는다면 그
것은 도개비 장난과 같다"고 말씀하셨
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세
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남을 리드할 수
도 있고, 정신계에 원동력을 붙여넣어 줄
수도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영혼의 근본은 둘이 아니기 때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손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근본 자리가
바로 통신처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
기다 말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주인공의 마음과 일체제
를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통증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0

외줄로 천을 짤 수 있다고 장담하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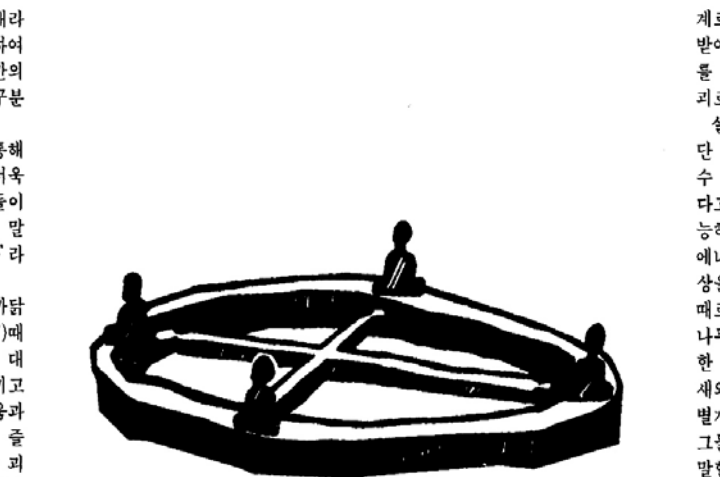
"세상은 거대한 한그루의 나무이다.
그 근본은 뿌리, 즉 주인공이요 부처의
당체이다.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가지와
잎들이 나타나는 것이 곧 현상계이다. 그
러나 이것도 방편으로써 나누어 설명하
는 말을 빌렸으니 그러할 뿐이지 사실
은 하나라고 바로 알아야 한다. 각각의
잎을 생명체로 비유할 수 있지만 뿌리
와 잎이 본래 따로따로인 것은 아니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고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혼자 먹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
다. 일체는 서로 주고 받으며 공생·공
식·공용·공식하며 공체로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 한순간이라
도 독립적일 수 없다.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나홀로'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이 세
상에 개별적·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자가발전이란 불가능
하다. 우주 또는 현상계라는 거대한 발
전소에 연결된 동력기관에 불과하다고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각자를 독립된 존재라
고 믿고 있다. 나의 육신을 기준으로하여
그 속에 담긴 정신 또는 영혼을 '나만의
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
하는 온갖 표현들에 집착한다.
자존심, 개성, 능력, 소득 따위를 통해
'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나'를 더욱
소중히 나로 사랑하려 한다. 성현들이
'나'라고 말할 실체는 없다'고 아무리 말
을 해주어도 우리들은 고집스레 '나'라
는 그 착각을 붙들고 산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꿈인 까닭
은 바로 그 '나'라는 착각, 아상(我相)때
문이라고 하셨다. 아상이 있으므로써 대
상을 휘사선택하고 끌어모으고 아끼고
하기가 사랑과 미움이 생기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따르는데 그나마 사랑이든 즐
거움이든 영속하는 것은 없으니 결국 괴
로움만 늘게 되어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열심
히 분별하고 집착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
을 찾듯이 '나', '나의 것'을 향해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다.

'나'라는 독립된 세계, '나'로 이름
하는 개별적인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와
너, 나와 일체의 대상이 다만 하나의 세



계로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굳이 '나'
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 때문에
괴로와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은 단란 세계란 없다. 우리들 자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문을 닫아걸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단란 세계, 독립된 존재가 있
다고 하겠지만 실상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
하다. 생명체라면 외부로부터 부단히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산다. 그래서 세
상을 한그루의 거대한 나무로 비유한다.
때로는 거대한 그물로도 본다. '나'는 그
나무의 잎새가 되고 '나'는 그 그물의
한 코가 된다. 말하자면 잎새와 잎새, 잎
새와 나무는 한 몸이요 그물과 그물코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잎새나
그물코가 어찌 나홀로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각각일 뿐이다.

나를 위해 함께 어게동무하면서 살고 있
는 것이다.
세상에 더불어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
도 해낼 수 없다. 내가 사용하는 일체의
도구나 자원, 내가 살기 위해 먹고 마시
는 일체의 음식물들, 내가 일을 하면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
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먹고 살리는
상대성의 이치가 그 속에 있다.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면서 공심 공
체로 사는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 한것을 나만의 것으로
나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요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마치 '나'라는 씨
줄 하나로 낱줄 없이 천을 짤 것이라고 우
거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 그 일의 결과는 공유이
다.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짚낸 공동작품이다. 공유
의 산물이다. 어찌 '나'라는 외줄로 천을
짤노라, 할 수 있노라고 장담하겠는가.

**“나홀로”란 없다. 이 세상 어떤 일이
라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건 다만 상대적인 표
현일 따름이다 따라서 내것, 내것을 고집
하는 것부터가 이 현상계의 이치를 외면
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방 식구요 도
반인 것이다. 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협찬 : 오병진